

많은 문제와 갈등을 하나님의 더 큰 축복 25시로 바꾼 고린도교회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전서- 창세기 45:4-5, 고린도전서 1:17-18

정윤돈 목사님

* **창45:4-5**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 **고전1:17-18**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강단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생명 걸 헌신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에게는 4 형제가 있는데, 내 기억에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누님과 동생이 주먹다집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다. 태영아, 가정적인 분위기와 부모님의 영적상태가 중요한 것 같다. 가정은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이다. 그 안에서 사랑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성경 속 요셉에게는 이것이 안 되었다. 요셉이 꿈꾸는데 형님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총리가 되어서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가. 위기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갱신할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사실은 알기만 해도, 인정만 해도 깨달아진다. 변화가 된다.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잘못하는 것보다도 남 탓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더 나쁘다. 잘못해서 꾸지람을 들으면 잘못된 줄을 안다. 그러나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갱신이 안 된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었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고린도교회는 타락한 이미지였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복음으로 거듭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참사랑교회의 이미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대단한 것을 할 필요가 없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옳은 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옳은 말을 하지 않는다. 살리는 말을 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소망을 갖는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민다. 결국 창세기 3장일뿐이다. 사탄의 울무, 틀, 함정에 잡혀서 계속 끌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었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이것이 참사랑이고 참된 복음이다. 참사랑과 참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수록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바로 고린도교회가 그러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생각만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참 성공자는 이 자리를 지키는 자이다. 이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같이 응답을 받는다. 교회, 가정 안에서 대단한 것을 할 필요가 없다. 먼저 해야 할 것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가 다 따라온다. 복음소식을 올린 지 9년이 되었는데 영상을 보고 연락이 온 사람만 500명이다. 그 중에서 99%가 우리 교단이 아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부흥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 그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이다. 오직 예수, 오직 후대, 오직 탕넌트하면 응답을 주시는 것에 증언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응답을 받을수록 많은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만 문제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리가 없다. 문제될 것이 없다.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하고 힘든 것에 도전해야 한다. 그런데 함께 가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끌려가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어렵지 않다. 복음가진 사람이 걸어만 가도 흑암이 꺾인다. 그 믿음이지고 하는 것이다. 나 혼자 부족함이 많다. 혼자서는 못한다. 그러나 함께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교회를 통해서 성공하기 전에 미리 자세를 갖추라고 말씀하신다. 요셉은 어렸을 때 철이 없었지만 갈수록 철이 들었다. 이것이 참사랑이고 참복음이다. 고린도교회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고린도교회는 짧은 기간에 크게 부흥하였지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고린도전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해결의 답을 제시한 성경말씀이다. 고린도교회는 많은 문제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비대면으로 전해주시는 강단말씀을 붙잡고 참사랑의 교회로 변화되어 그 후로 오랫동안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 고린도교회에 지금도 남아 있는 역대 담임목사들의 명단이 있다. 여기 보면 1대 목사는 사도 바울, 2대는 아볼로, 3대는 실라로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2006 년도까지 기록되어 있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우리 참사랑교회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결해 나가면 영원토록 남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장로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136년의 역사를 가진 새문안교회의 1대 담임목사는 언더우드선교사이다. 1887년 9월 27일 화요일에 설립되었다. 선교사이면서 담임목사였다.

1. 첫 번째로는 먼저 고린도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째로 고린도교회의 문제는 내부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나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 중심,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분과를 만든다. 창세기 3장, 마귀적인 것이 내 안에 있으니가 그런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우리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성공중심, 돈 중심, 내 이익중심, 분과를 만든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 가족부터, 원수같은 사람일 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2) 두 번째의 문제는 전도를 할 때에 세속적인 지식이나 철학적인 언변으로 전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가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말하며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을 붙여 주신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복음을 강요하는 것은 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락방에 가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사람이 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증인이 되어야지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내 안에 복음을 누리는 것을 조금만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응답이 온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다.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이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침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는가. 뜻이 천국에서 보장되면 그 응답이 나에게, 우리 가운데에 온다.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증인이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3) 또한 고린도교회는 근친상간의 음란한 문제가 있었다. 세상에는 타락하고 악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어떤 문화에서도 속지 않고 누구도 사랑하고 살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4)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세상 법에 소송을 하는 문제도 있었다.

(5)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독신, 이혼, 재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6) 또한 8장에 보면 위상에게 비쳤던 음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 위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떤 분이 질문을 했다. ‘술, 담배를 하면 지옥에 가나요?’ 여기에 목사님이 답을 했다. ‘술, 담배 해도 지옥에 안 가. 그러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는 있어.’ 하나님께서는 영육 간에 흠 없이 보전되기를 원하신다. 복음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좋아한다. 거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싫어진다.

(7) 11장 2절에서 16절에는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 그 나라와 전통과 문화이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는데 그 때 당시에는 남녀칠세부동석인데 오자마자 ‘남녀 모여서 예배드리자.’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1800년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운데에 커튼이 쳐져 있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았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단번에 끊어내기는 어렵지 않은가. 개혁은 급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응답받아가야 한다.

(8) 11장 17절에서 34절에서는 ‘성찬문제’에 대하여,

(9) 12장에서는 방언과 예언 등 다양한 은사의 문제에 대하여,

(10) 그리고 15장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도 응답받고 사역을 크게 하고 교회가 커질수록 문제가 많아질 수 있다.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축복과 응답의 발원이다. 기도의 제목이다. 나의 악한 습관이 안 바뀔 때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나에게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만 필요해.’ 어느 순간 거둬나게 될 것이다.

2. 두 번째로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고린도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25 시의 축복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문제와 갈등은 기도 안에서 해결하면 축복이 되는 것이다.

(1) 첫 번째로 고린도교회의 전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도의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25 시이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 반복해서 묵상하고, 확인하고, 전하면서 누리고 있으면 된다. 그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 담긴 것이 복음소식이고, 복음편지이다.

(2) 우리는 고린도교회의 문제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25 시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몸이 무너지면 영혼이 떠나간다. 그것이 죽음이다. 그만큼 몸이 중요한 것이다. 복음 때문에, 전도현장에 나가려면, 다락방, 지교회 할 때 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키기를 바란다.

(3)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음란과 방탕함이 가득한 고린도와 고린도교회 때문에 최고의 참사랑의 내용이 정리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그 작품이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25 시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을 보겠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

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서 사랑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해 보라. 기뻐해 보라. 순종하고 복종해 보라.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알지 못해도 그 이후에 얻은 축복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강단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천국에 가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사실 모든 문제와 갈등은 이 하나님의 사랑 25 시가 없기 때문에 발생되고 확대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계획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25 시를 실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결론이다. 오늘은 고린도교회가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성취하고 남겼던 5가지 RUTC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우리도 이러한 RUTC를 만들어야겠다.

1. 먼저 제1RUTC 운동이다. 고린도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더욱 더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제1RUTC 운동이다.

2. 다음은 제2RUTC 운동이다. 제2RUTC 운동이란, 곳곳에 후대들을 훈련할 수 있는 센터를 건축하는 것이다. 고린도교회는 늦게 개척된 교회였지만 오히려 많은 교회를 후원하였다. 고린도교회는 분명 많은 곳에 후대들을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센터를 건축하기도 하고 마련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3. 다음은 제3RUTC 운동이다. 고린도교회는 크게 부흥하여 당시 그리스와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보이지 않게 모든 현장에 복음엘리트와 산업인들을 파송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

4. 제4RUTC이다. 제4RUTC 운동이란,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여 흑암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운동이다. 고린도교회는 당시 전 세계에 있는 무속, 점술, 우상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일에 대표적으로 쓰임 받은 교회가 되었다.

5. 마지막으로 제5RUTC 운동이다. 제5RUTC 운동이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운동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회에서 발생되었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 또 다시 일어날 교회 안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을 주고 있다.

끝으로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와 갈등에 속지 않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날까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올인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을 때도, 많은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 죄수꾼으로써, 그 현장을 살릴 죄수당대를 세우는 하늘보좌의 축복을 받은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축복 25 시를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